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박 현 순**

1. 머리말
2. 식년시·경과의 이원화와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대두
3. 18세기 경향 간의 불균형 완화와 경과 우위 지역의 확산
4. 19세기 문과의 경향 통합과 성균관 시험을 통한 차별화
5. 맺음말

1. 머리말

과거는 개인의 능력을 본위로 하는 선발제도로 개방적인 운영을 통해 활발한 계층 이동을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구미학계에서는 주로 중국 과거제 연구를 통해 이런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1] 조선시대 문과 연구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2]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개방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된다. 하나는 과거 응시 자격의 개방성이다.[3]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과거에는 서얼, 천인, 범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1) 명청대 과거제와 사회 계층 이동을 둘러싼 논의는 다음 글 참조. Benjamin A, Elman, 2000,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39-249면.

2) 조선시대 과거제의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은 다음 글 참조. 원창애, 1997 『朝鮮時代文科及第者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8면.

3) Choe, Yong-ho, 1974 "Commoners in Early Yi Dynasty Civil Examinations: An Aspect of Korean Social Structure, 1392~160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33. University of Hawaii(「朝鮮前期 科擧制度와 良人 : 1392-1600년대 조선사회 구조의 한 측면」(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연구실 편역, 1987 『朝鮮身分史硏究 : 身分과 그 移動』, 법문사에 번역수록) ; 송준호, 1976 「조선시대의 과거와 양반 및 양인 : 문과와 생원 진사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보』 69, 역사학회 ; 김경용, 2003 『科擧制度와 韓國近代敎

죄자의 후손을 제외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또 서얼의 응시 제한도 명종대 이후 점차 축소되어 숙종 21년(1695) 이후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후에는 천인이 아닌 남성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육 기회나 지역 사회 내부의 권력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제약도 있었다.[4] 그러나 인구 증가와 무관하게 과거 응시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통해 과거에 응시하는 계층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또 하나는 시험 결과의 개방성이다. 현전하는 국조문과방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과를 통해 지배층이 재생산되는 면모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역과 가계 출신의 급제자가 출현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이전까지 급제자가 거의 없었던 평안도 급제자가 전체 급제자의 20-30%를 차지하여 일부에서는 과거를 통한 계층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과거의 개방적인 면모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문과 급제자 중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에서 과거 급제자의 배출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수반하였다.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상도·전라도 편중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조선후기에는 이와 같은 편중 현상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완화 추세가 본격화되는 17세기에 들어 오히려 문과 운영에서 경향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18세기까지도 문과 운영에서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을까? 그리고 불균형은 어떻게 완화될 수 있었을까?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과는 고급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정치세력이 재생산되는 주요한 기제였다. 따라서 문과의 운영 자체도 정치권력의 향배와 정치세력의 성격에 영향을 받았다.

育의 再認識』, 교육과학사

4) 이성무, 1971 「조선초기 문과의 응시자격」『국민대학교논문집』 9(『한국과거제도사』[1997, 민음사]에 재수록) ; Benjamin A. Elman, 앞의 글 ; 박현순, 2006 『16~17세기 禮安縣 士族社會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14-220면. 사회권력구조에 의한 제약은 사족층의 발달 상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족층이 발달한 삼남지방에서는 비사족층에 대한 제약이 많았던 반면 평안도 지역에서는 훨씬 개방적인 면모를 보였다. 오수창, 2003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127-135면.

5) 박현순, 2009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 박현순, 2011 「19세기 文科에 대한 고찰」『한국문화』54,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6) E. Wagner, "The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Occasional Papers on Korea 1*, June 1974, pp.1-8(에드워드 와그너(이훈상·손숙경 역), 2007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에 「조선시대 출세의 사다리」로 번역 수록) ; E. Wagner, "The Civil Examination Process as Social Leaven : The Case of the Nothern Provinces in the Yi Dynasty", *Korea Journal vol. 17*, 1977 pp.27-29(위의 책에 「사회 완충제로서의 과거 : 서북지역의 사례 연구」로 번역 수록)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도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7] 그러나 과거는 사회계층을 재생산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그 운영에는 교육,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또 제도 내부적으로는 과거제도의 운영 원리나 응시자의 응시 경향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 중에서 본고는 특히 과거제도의 내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완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식년시·경과의 이원화와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대두

1) 과거와 지역안배

조선시대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를 기본으로 하였다. 식년시 문과는 초시, 회시, 전시 3단계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단계 초시는 성균관의 館試와 함께 지역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서울의 漢城試와 지방의 鄕試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인재들을 고르게 등용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별로 초시 선발 인원을 책정하였다.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있다. 향시를 치르는 증광시도 이에 준하여 선발 인원을 산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유생들이 향시에 응시할 때에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試官과 相避관계에 있거나 父子가 함께 응시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거주지의 시소에 응시해야만 했다.[8] 거주지 응시를 원칙으로 지역별 선발인원을 배분한 것은 전 지역의 인재를 천거받는다는 鄕貢의 이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시소에 응시하는 경우는 '賓貢'이라고 하여 발각되면 응시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 제도는 이미 태종대부터 나타나지만 한동안은 그리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9] 그러나 중종대 이후 빈공으로 인하여 科場에서 분쟁

---

7) 조선시대 문과 운영에 대해 정치사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차장섭, 1997 『조선후기벌열연구』, 일조각 ; 車美姬, 1999 『朝鮮時代 文科制度 硏究』, 국학자료원 ; 원창애, 앞의 논문.

8) 『경국대전』 禮典 諸科 "非居本道者 … 勿許赴鄕試 試場置二·三所"

9) 賓貢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태종 3년(1403)부터 시작되었다. 태종 17년 이에 의거하여 三館에서 향시에 합격한 빈공들의 회시 응시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있다. 『태종실록』 권17, 태종 17년 3월 16일(임인)

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자 명종 6년(1551)에 戶籍을 상고하여 거주지를 파악하도록 법제화하였다.[10]

그러나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주거지를 고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대부들은 親家 외에 外家나 妻家를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고, 거주지 인근에 가옥과 토지를 결합한 농장을 개설하여 여러 곳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생활의 근거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농장 소재지나 三鄕도 거주지로 인정하여 호적에 입적시켜 주었다.[11] 이에 따라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호적지를 변경하는 사례들도 흔히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공을 둘러싼 분쟁도 잇달아 현종대에 이르러 거주지 응시 법제를 한층 강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12] 여기에는 사족층의 부변 거주가 보다 보편화되어 거주지를 특정하기 쉬워졌다는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인구와 유학의 보급 정도에 기초한 잠재적인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정원과 현실의 문과 급제자 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16세기 식년시·증광시 향시의 지역별 선발인원과 문과 급제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은 급제자 비율이 배 이상 높았고,[13] 경상도와 전라도는 거의 유사하였으며, 나머지 6개도는 선발인원의 비율에 미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급제자의 절반가량이 서울 출신이었고, 나머지의 절반은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이었으며, 여타 지역의 급제자 배출은 미미하였다[부표 참조].[14]

---

10)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 8월 26일(신사)

11) 『명종실록』 권4, 명종 1년 8월 23일(정미) ;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24일(신묘) ; 『현종실록』 권4, 현종 2년 9월 13일(기축)

12) 『현종실록』 권10, 현종 6년 5월 22일(정미)

13) 식년시 문과 초시 중 한성시 선발인원은 40명으로 전체 240명의 16.7%, 관시를 제외한 190명의 21.1%였다.

14) 『국조문과방목』에는 정조대 이후에만 급제자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 와그너와 송준호는 이를 기초로 단과방목 및 登科錄, 縉紳錄, 族譜 등을 참조하여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본고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E. 와그너·송준호, 「補註 朝鮮文科榜目」, 동방미디어주식회사). 그러나 조선전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아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를 단정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와그너와 송준호가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는 15세기 45.8%(878명/1,919명), 16세기 75.8%(1,820명/2,402명), 17세기 93.1%(2,708명/2,908명), 18세기 99.9%(3,642명/3,645명), 19세기 99.9%(3,738명/3,741명)로 조선전기로 갈수록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거주지를 파악한 경우에도 널리 알려진 바와 다른 경우들이 있다. 나아가 단과방목에 기재된 거주지 자체가 실제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도 있다. 이처럼 조선전기 급제자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긴 시간에 걸친 가계의 성쇠에 따라 조선초기 지배층의 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16세기까지도 지배층의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거주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족층의 세거지가 일찍 발달한 지역일수록 16세기 이후의 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

지역별 초시 선발인원과 급제자의 비율이 다른 것은 초시의 지역할당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시에서 전국의 인재를 선발하기는 하지만 실제 급제자는 회시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배를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초시에서 시행한 지역 할당제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었다.

한편 향시가 없는 별시[15]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별 급제 경향은 식년시·증광시와 유사하였다. 즉 시종에 관계없이 16세기 문과 급제자는 서울 출신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지방 중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편중되어 있었다[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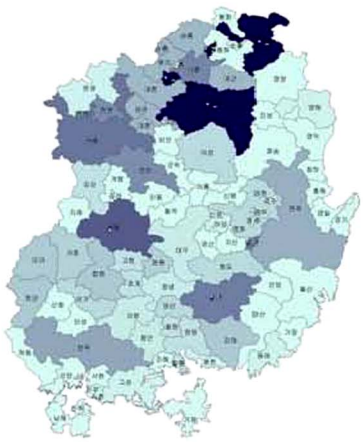
16세기 지방에서의 급제 양상은 급제자가 가장 많았던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현별 문과 급제자 수를 통해 그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두 도에서 문과 급제자가 많은 지역은 경상도의 안동, 상주, 성주, 전라도의 광주, 나주, 전주, 남원 등이다. 이 지역들은 모두 大邑으로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급제자가 많은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읍 사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경상도의 경우 안동의 급제자는 32명이었지만 성주는 19명, 상주는 16명, 진주는 10명, 경주는 9명으로 지역별 차이가 상당하였다. 반면 전라도는 나주와 광주는 26명, 전주는 21명, 남원은 16명으로 경상도에 비해 그 차이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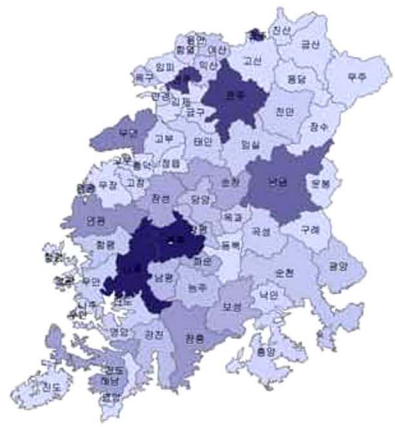
보다 주목되는 것은 중소읍 가운데 읍세에 비해 문과 급제자가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경상도의 함창(13명), 용궁(7), 예안(7), 전라도의 부안(12), 해남(8) 등이 그 예이다. 이 지역들은 현감이 파견되는 소읍이었지만 문과 급제라는 면에서는 중읍보다 나은 성과를 낳았다.

두 도의 급제자 분포를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도내에 고르게 분포한 대읍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문과 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는 안동과 상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문과 급제자가 많은 지역이 집중되어 있었다. 전라도의 경우 경상도만큼 집중적이지는 않지만 나주와 광주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15) 조선시대 과거제에서 別試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식년시에 대비되는 광범위한 특별시험을 지칭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속대전』에 제도화된 별시를 지칭하는 경우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속대전』의 별시는 '別試'로, 특별시험을 지칭하는 별시는 '慶科'로 지칭하였다.



<그림 1> 16세기 경상도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



<그림 2> 16세기 전라도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

이러한 양상은 대읍일수록 교육 기반이 탄탄하였고, 그 영향이 인근 지역까지 파급된 데서 비롯되었다. 대읍은 대개 문관 수령이 파견되고 향교에도 교수가 파견되어 소읍에 비해 교육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우세하였다. 또 지역내 사족들의 성장이 빨라 다른 지역에 비해 사족들의 네트워크도 강했다. 따라서 대읍이 소읍에 비해 교육적인 성취를 이루기가 더 쉬웠다. 그리고 대읍의 장점들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 연결된 인근지역까지 파급되었다. 16세기 안동 인근 예안 사족들이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안동과 영천, 풍기 등 인근지역의 사족들이 함께 居接하거나 영천·안동의 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16] 이런 양상은 대읍 인근의 소읍들이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데 보다 유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교육 자원의 차이는 서울과 지방, 또는 지방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대읍 중심이라는 공통적인 경향 위에 나타나는 지역 간의 격차는 조선 개국 이후 각 지역에서 형성된 崇文 경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에서 안동·상주지역은 퇴계학파 형성의 모태가 된 곳이며, 전라도 광주지역은 金麟厚, 李仲虎, 奇大升 등 이른바 호남사림의 중심이 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문과 급제자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상 16세기 문과 급제자의 거주 지역 분포를 정리하면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

16) 박현순, 2007「16세기 예안현 사족층의 修學과 관직 진출」『교육사학연구』17-1, 교육사학회

에 급제자가 집중되어 있었다. 지방 내에서는 대읍과 그 인근 지역에서 보다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교육 자원이 풍부하고 유학의 보급이 빠른 지역에서 시종에 관계없이 다수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양상이었다.

2) 식년시·경과의 이원화와 경향 간의 불균형 문제 대두

시종을 불문하고 서울 출신이 급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16세기의 구도는 17세기 들어 무너졌다. 식년시 급제자 중 지방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17]

식년시는 經學과 詞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하에 초장에서는 경학, 중장과 종장에서는 사장을 시험하였다. 특히 회시에서는 경학을 강화할 목적으로 초장에 講經을 도입하고 초장 강경과 중장·종장의 제술을 합산하도록 하여 경학의 비중을 높였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강경 점수가 15점 이상이면 제술 성적에 상관없이 급제를 내리는 것이 관행화되었다.[18] 이 또한 경학을 부양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점차 강경 점수가 높아지면서 강경 급제자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제술 급제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곧 식년시가 강경 우수자를 주로 선발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背講으로 시행하는 강경이 口誦의 평가에만 치우쳐 급제자들이 경학에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19] 또 하나는 강경을 주로 한 식년시 출신자들의 製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20] 당초 식년시는 경학과 사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으나 현실에서의 식년시 급제자들은 경학도 사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강경을 臨講이나 文義 위주의 평가로 시행하고 그 기준을 높여 강경 점수를 낮춤으로써 제술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숙종 10년(1684) 식년시 회시 講經法을 개정하여 강경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제술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강경 출신자가 전시에서 적절한 수준의 문장을 짓지 못하는 경

17) 17세기 거주지가 확인되는 급제자는 2,908명 중 2,708명으로 93%에 이른다. 이 중 서울 출신은 1,374명/2,708명으로 51%이며, 식년시 급제자는 258명/1,009명으로 26%를 차지하였다. 16세기 거주지가 확인되는 급제자 중 서울 출신의 비율은 1,044명/1,820명으로 57%이며, 식년시 급제자는 394명/778명으로 5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17세기에 서울 출신의 식년시 급제 비율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인조실록』 권49 인조 26년 10월 25일(병진) ;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1월 14일(계해)

19) 『현종실록』 권17, 현종 10년 12월 20일(기묘) ;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1월 3일(정사)

20) 『현종개수실록』 권2, 현종 1년 1월 25일(신사)

우 급제를 보류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었다.[21] 그러나 이로써도 강경 급제자의 비중은 낮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숙종대 후반에 이르면 강경에서 14분 이상을 얻은 자는 제술 성적과 상관없이 급제시키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 제술로 급제하는 경우는 33명 중 1-2명에 불과하였다.[22] 이런 가운데 강경을 주로하는 식년시는 '明經科'로 일컬어졌으며, 이에 대해 제술로만 평가하는 慶科는 '製述科'로 일컬어지게 되었다.[23]

경과는 增廣試, 別試, 庭試, 謁聖試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으나 전적으로 제술로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24] 試題는 對策, 表, 賦, 銘, 箋, 箴, 頌, 制, 詔, 論 등에서 일부를 출제하였는데, 17세기에는 시종별로 사실상 급제를 결정하는 시제의 종류는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증광시의 경우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회시의 시제는 부, 표, 책을 주로 출제하였다. 별시 전시에서는 책을 주로 출제하였으며, 정시·알성시 등 친림시에서는 부·잠·명·송·표 등을 돌아가며 출제하다가 숙종대에는 거의 대부분 표를 출제하였다.[25] 결국 합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부, 표, 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이 중 표와 책은 문장을 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倍劃이라고 하여 다른 과목에 비하여 점수를 두 배로 매기는 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과 전체에서는 표와 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는 정시가 별시를 대체하면서 표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

21)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0월 26일(무오)

22)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윤3월 4일(신사)

23) 『영조실록』 권59, 영조 20년 1월 23일(신축) "我朝科目之以明經取人 厥惟久矣 退栗諸賢 皆以明經進 豈不義哉 末流之弊 專尙口讀 遂與製述科 分而爲二 至於諺數慢曰明經科". 여기서 명경과는 식년시를 가리키는 말로 『경국대전』에 제도화된 明經試와는 다른 시험이다. 명경시는 성종 10년(1479)에 제도화된 강경 시험이다. 초시와 회시를 사서오경의 강경시험으로 치르고 전시는 식년시 전시에 나가도록 하였다. 실록에서는 이 시험을 '明經科'로 칭하고 있다. 명경시의 시행 사례를 보면 시험이 부정기적인데다 명경시에 급제한 임계중이 방목 상에는 중종 9년 알성시 급제자로 나타나 『경국대전』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또 언제까지 시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선조 19년 조헌이 중종대 명경과를 잠시 시행했다고 한 것이나 광해군대에 조종조 때 명경과를 시행하였다고 언급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즈음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실록』 성종 10년 11월 12일(계사) ; 『중종실록』 권72, 중종 27년 3월 20일(기사) ; 『선조수정실록』 권20, 선조 19년 10월 1일(임술) ; 『광해군일기』 권89, 광해군 7년 4월 11일(정해)

24) 조선시대 경과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는 원창애, 앞의 논문, 9-24면 및 차미희, 앞의 책, 151-161면 참조.

25) 17세기에는 32회의 별시가 실시되었는데, 시제가 확인되는 전시 29회 중 26회에 책문이 출제되었다. 친림시는 69회가 실시되었는데, 시제가 확인되는 67회 중 39회에 표가 출제되었으며, 숙종대에는 32회 중 28회에 표가 출제되었다. 『국조문과방목』 및 이병혁, 1986 「한국과문연구 : 詩賦를 중심으로」 『동양학』 1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이상과 같이 식년시와 경과가 변모하는 과정은 강경을 위주로 하는 식년시와 표·책을 위주로 하는 경과로 문과가 이원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선초 이래 문과는 경학과 제술을 겸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으나 식년시는 강경 위주로 운영되고 여타의 경과는 표·책 위주의 제술 위주로 운영되며 양자의 성격이 대비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응시자들의 수험 경향에도 영향을 미쳐, 강경을 주로 하는 明經生과 제술을 주로 하는 製述生의 구분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26]

이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식년시와 경과의 분화와 함께 서울 출신과 지방 출신의 급제 경향도 분화되어 식년시 급제자는 지방 출신, 경과 급제자는 서울 출신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급제자의 출신 지역이 편중되는 양상은 식년시에서 먼저 나타났다. 거주지가 확인되는 식년시 급제자 중 지방 거주자의 비율을 보면 명종대에 44.3%에서 선조대 54.5%, 광해군대 62.0%, 인조대 72.2%로 급격히 증가하여 숙종대에는 84.4%에 이르렀다. 인조대에 이미 서울 출신들의 식년시 급제가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등장하는데, 이는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27]

朝官들은 서울 출신들의 급제를 늘리기 위하여 제술 시험인 별시나 정시를 자주 설행하도록 건의하였다.[28] 외형상의 명분은 국가의 경사를 경축하거나 식년시를 맞아 중외의 유생들이 서울에 모였을 때 친림시를 실시하여 유생들을 권면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술 시험을 시행하자고 건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서울 출신의 급제를 늘리자는 주장의 우회적인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29]

실제 17세기 경과 급제자 중 서울 출신의 비율은 증광시 61.8%, 별시 66.3%, 친림시 79.4%로 16세기에 비해 한층 높아졌다.[30] 증광시는 부제가 출제되고, 별시는 초시에 부, 표, 논이 출제되어 그나마 비중이 낮았으나 표가 출제된 친림시는 서울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정시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속언이 생겨날

26) 趙翼, 『浦渚集』 권11, 「請變通科擧講經箚」(1633)
27) 『인조실록』 권50, 인조 27년 3월 18일(정축)
28) 『인조실록』 권49, 인조 26년 7월 13일(병자)
29) 『인조실록』 권50, 인조 27년 3월 18일(정축)
30) 문과 시종은 식년시,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외방별과 등이 있었다. 이외에 성균관 시험을 통해 직부전시 자격을 얻어 문과에 급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부전시자는 방목 상에서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급제의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일반 문과와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직부전시자로 구분하였다. 직부전시자는 『국조문과방목』 및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서 확인하였다.

정도였다.[31]

식년시와 경과에서 나타나는 경향간의 급제 양상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배경으로는 우선 16세기 후반 서울과 지방의 학풍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관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선초 이래 詞章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반면 16세기 후반의 학파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에서는 경학의 발달이 보다 우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학파 내에서 경상도 출신들은 성리학으로 명성을 얻고, 서울 출신들은 문장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점도 서울과 지방의 학문적 경향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시사한다.[32]

한편 조관들이 식년시 출신들을 비판할 때 諺解를 달달 외어 口誦에만 익숙하다고 폄하한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33] 여기서 말하는 언해는 17세기 초에 간행한 四書三經諺解를 말한다. 언해본의 간행은 懸吐와 해석의 표준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강경 시험의 평가 기준도 제시하였다.[34] 따라서 응시자들은 언해본을 통해 강경 시험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詞章이 취약한 지방 출신들이 이에 주력함으로써 식년시 급제 가능성을 높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방유생들은 表文의 작법을 배우지 못하여 답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이야기될 만큼 표문에 취약점을 드러내었다.[35]

이에 비해 서울 출신들은 표와 책을 집중적으로 연마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조대 尹淳(1680-1740)의 회고에 따르면 서울의 사대부들은 詩로 소과를 준비하고 표와 대책으로 大科를 준비하는데, 자신도 부제가 나오면 책보를 싸서 나와 버렸다고 술회하여 그의 과거 준비도 표와 책에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36]

어느 경우에나 응시자들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기 마련이다. 이는 17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경학에 강한 지방 유생들이 식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서울 유생들은 제술 시험에서 비중이 높은 표·책을 집

31) 『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 8월 29일(무자)

32) 황위주, 2004 「서울·경기 지역의 퇴계문인과 그 성격」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519-534면

33)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9월 11일(갑술) "九萬 式年文科 每三年取三十三人 而只取口誦 專不解文義 遐鄕鹵莽之人 或以諺文 自幼習讀 及登科 不能爲書札酬應 故方今文官 人數雖多 三司等職 每患乏人 京外試官 亦或苟充 不可無更張"

34) 『인조실록』 권29, 인조 12년 1월 23일(경술) "科擧講經 以背講爲規 其誦者 有一字之差 與吐釋或有違於當時印本 則皆落之" ; 『속대전』 예전 제과 式年文科覆試 講書 "諺解從舊解"

35)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9월 26일(기축) ;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4월 3일(갑자)

36)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4월 28일 (갑진) "士夫敎子弟 以詩見小科 以表策見大科 小臣於場中 若遇賦題 則裹冊袱出去矣"

중적으로 연마하여 경과 급제를 모색하였다. 이런 양상은 17세기 식년시와 경과의 이원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7세기 朝官들은 다양한 형태로 경과의 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다. 효종 2년(1651) 조석윤은 외교 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려문을 출제하도록 청하였다.[37] 또 현종 13년(1672) 별시 때 국왕이 초시 과목을 논과 부로 하고 강경시험을 치르도록 하자 대신들은 '廣取'를 위해 강경을 제하고 부·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38] 강경을 제외하거나 표를 출제하는 것은 곧 강경에 취약하고 표에 강한 서울 유생들을 위한 조처였다.

반면 현종 12년(1671) 허적은 표문을 출제하면 지방 유생들이 실망하고 표문을 내지 않으면 서울 유생들이 실망한다는 이유로 行文과 四六文을 兼用한다는 명분으로 詔制를 출제하도록 하였다.[39] 또 숙종 1년(1675) 민희는 문과 전시에서 책문 대신 잠, 명, 송을 출제하도록 청하였다.[40] 표와 책의 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곧 지방 유생들의 급제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17세기 시제 문제는 이상과 같이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나 숙종대 들어 친림시 시제가 표제에 편중되면서[41] 친림시 시제를 개선하자는 면으로 귀결되었다. 지방 유생들이 표문을 짓지 못하므로 표문의 비중을 줄이고 부·잠·송·명·책 등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자는 것이었다. 숙종은 이에 대해 賦 등 다른 시제를 섞어 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42] 숙종 말년 2회에 걸쳐 箋이 출제하였을 뿐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17세기 전체 문과 급제자 수를 보면 서울 출신과 지방 출신의 비중이 50.7% : 49.3%로 거의 백중세였다. 비록 식년시보다 경과가 더 자주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별시나 친림시는 10명 이하의 소수를 선발하는 데 그쳤고, 증광시나 별시에서는 지방 출신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 각도에서도 급제자가 늘어나 경상도는 물론 그간 문과 급제자가 적었던 강원도, 충청도, 평안도 지역에서도 급제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16세기 경상도, 전라도에 급제자가 편중되

37) 『효종실록』 권7, 효종 2년 10월 8일(임자)
38)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 5월 14일(기미)
39) 『현종실록』 권20, 현종 12년 12월 20일(정유)
40)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10월 25일(기묘)
41) 17세기 거주지가 확인되는 친림시 급제자의 출신 지역을 보면 17세기 전반에는 서울 출신이 174명 중 127명으로 73.0%였으나 17세기 후반에는 273명 중 228명으로 83.5%에 이르러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된 것을 볼 수 있다.
42)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4월 3일(갑자) ; 『숙종실록』 권54, 숙종 39년 6월 21일(병신)

었던 경향도 완화되었다.

이처럼 지방 출신의 문과 급제 비율이 높아지고 지역간의 편중 현상도 완화되는 가운데 왜 지방 유생들을 위해 친림시 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식년시 급제자의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식년시가 강경 중심으로 운영된 이래 식년시 급제자는 줄곧 제술은 물론 경학에도 정통하지 못하다고 폄하되었다. 심지어 諺文으로 경서를 외는 데 급급하여 편지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식년시 급제자는 文翰職은 물론 三司 관원이나 제술 시험의 試官으로도 나갈 수 없었다.[43] 이즈음 식년시는 사실상 고급 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식년시 강경 문제를 계기로 제기되었던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도 친림시 문제로 논의의 중심이 옮아가 친림시 시제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3. 18세기 경향 간의 불균형 완화와 경과 우위 지역의 확산

1) 시험 과목의 조정과 경향 간의 불균형 완화

영조가 즉위한 후에도 식년시에서 제술의 비중을 높이자거나 친림시에서 表文의 출제를 줄이자는 논의는 계속되었다. 영조는 지방유생들이 주로 식년시를 통해 급제한다는 이유로 식년시 제도의 변경에는 반대하였다. 간혹 강경 후 제술로 평가하는 生劃科를 통해 한두 명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강경을 통한 선발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반면 친림시에서는 표 대신 부·송·잠·명·전·제·책 등을 번갈아 출제하였다. 표문에 능하지 못한 지방 유생들을 배려한 조처였다.[44] 영조는 식년시 급제자의 인사 차별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지방 출신들의 경과 급제를 늘려 경향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탕평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송·명 등의 4자문은 누구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 답안 제출이 늘어나 시험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43)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9월 11일(갑술)
44) 『영조실록』 권49, 영조 15년 4월 28일(갑진)

또 부도 押韻을 하지 않아 수준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45] 이와 함께 다시 표문을 출제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영조는 지방 유생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륙문의 출제에는 반대하였다. 대신 부에 압운을 하지 않은 것은 違格으로 처리하여 부의 난이도를 높이도록 조치하였다.[46] 그리고 이후에는 친림시에서 부를 집중적으로 출제하였다.[47] 朝官들은 표문을 시험해야 實才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영조는 지방 유생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賦를 고집하였다.[48] 이처럼 친림시 시제가 부제로 집중되면서 지방 유생들도 친림시에서 서울 유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서울 유생들을 배려하여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영조 19년(1745) 정시에 초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초시 시제는 부와 표를 함께 내고, 절반씩을 선발하도록 하였다.[49] 또 성균관 시험을 자주 시행하면서 원래 강경만 하던 전강에 제술을 도입하고, 절일제 등의 제술에서는 서울 유생은 표, 지방 유생은 부로 시제를 구분하여 급제를 내리기도 하였다.[50]

한편으로 강경과 제술의 분화를 막기 위하여 경과에 一經講制度를 도입하고 殿講이나 節日製에 先講後製나 先製後講으로 경과 강경을 병행하기도 하였다.[51] 그러나 이미 유생들이 강경과 제술, 부와 표를 선별하여 익히는 경향이 만연한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그 차이를 인정한 위에 강경은 강경대로, 부는 부대로, 표는 표대로 각기 선발하는 방식으로 문과를 운영하여 최종적인 균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조대까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18세기 문과급제자 중 지방 출신은 56.4%로 17세기의 49.3%에 비해 7.1% 늘어났다. 시종별로 보면 식년시는 74.5%에서 88.3%로 13.8% 증가하

45) 科賦는 원래 엄격한 형식성을 중시한 律賦였으나 숙종대 이후 운자가 사라진 古賦가 일반화되었다. 이병혁, 1986「과문의 형식고(1)」『청천강용권박사송수기념논총』; 이병혁, 1998「한국과문연구 : 賦를 중심으로」(Ⅲ)『부산한문학연구』12,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강석중, 1999『韓國 科賦의 展開樣相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6)『영조실록』권35, 영조 9년 9월 7일(을유)

47) 영조대 시행된 친림시 71회 중 시제가 확인되는 66회 가운데 36회는 賦가 출제되었고, 표는 13회만 출제되었다. 영조 11년 이후에는 시제가 확인되는 59회 중 35회에 부가 출제되었고, 표는 9회가 출제되었다. 정조대에는 21회 중 부가 10회 표가 2회 출제되었다.

48)『영조실록』권49, 영조 15년 4월 28일(갑진) ;『승정원일기』영조 15년 4월 28일(갑진)

49)『영조실록』권57, 영조 19년 1월 25일(경진)

50)『영조실록』권71, 영조 26년 3월 17일(경신) ;『승정원일기』영조 41년 9월 6일(기묘) ;『영조실록』권117, 영조 47년 10월 27일(갑오)

51)『御製科弊釐正綸音』(1759)

였고, 증광시도 38.2%에서 48.3%로 9.9% 늘어났다. 친림시는 20.6%에서 29.9%로 9.3%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왕대별로 보면 표제가 출제된 숙종대 18.1%에서 부제가 주로 출제된 영조대에는 30.8%, 정조대에는 41.5%로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시제의 조정으로 친림시에서도 지방 출신들의 급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8세기에는 성균관 시험을 통해 전시에 직부하는 直赴殿試者가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 직부전시 하사는 숙종대부터 그 사례가 늘어났으나 영조대 원점제도를 도입하여 원점을 채운 유생들을 대상으로 절일제 등을 시행하여 직부전시 자격을 하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문과 급제자 중 직부전시자의 비율은 숙종대 8.6%에서 영조대 18.5%, 정조대 29.4%로 급등하였다. 따라서 18세기 이후의 문과 운영에서는 직부전시 하사가 큰 변수가 되었다. 직부전시자는 최종적으로 식년시나 경과 전시에 응시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미 급제가 결정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전시에 응시하는 것으로 일반 문과 출신과는 급제 경로와 시험의 내용이 달랐다.[52]

직부전시를 하사하는 시험은 제주도나 함경도, 평안도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성균관 시험이 있었다.[53] 이 중 중심을 차지한 것은 성균관 시험이었는데, 응시 자격이나 시험 과목은 시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殿講과 到記科는 강경과 제술을 함께 시험하였고, 節日製, 黃柑製, 應製, 別製 등은 제술만 시험하였다. 또 전강과 도기과는 거재유생만 응시할 수 있었던 반면 황감제, 절일제는 원칙적으로 圓點儒生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通方外'라 하여 왕명으로 모든 유생에게 응시를 허용하기도 하였다.[54]

18세기 직부전시자 681명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 출신이 54.6%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시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강경과 제술을

52) 성균관 시험에서 직부전시 자격을 얻은 자는 식년시, 증광시, 정시 등 문과의 전시에 직부하여 급제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방목에 직부 사실을 기재하여 일반 문과 출신과 구분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節製, 圓點科, 黃柑製, 到記科 등의 성균관 시험 출신자로 인식하였다. 조선후기 식년시 급제자는 명경과 출신으로 인사차별을 받았지만 식년시에 직부한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방목 상의 시종과 별도로 직부전시자를 구분하여 파악해야만 시종 간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附表에서는 직부전시자, 외방직부자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53) 본고의 附表에서는 지방의 특별 시험에서 직부전시 자격을 얻은 경우 '외방직부', 성균관 시험에서 자격을 얻은 경우 '직부전시'로 구분하였다.

54) 성균관 시험은 영조대 원점제도의 정비와 함께 확대되었으나 영조-정조대에 걸쳐 제도적인 변화도 많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지 못했다. 성균관 시험에 대해서는 별고를 준비 중에 있다.

함께 평가하는 도기과와 전강 출신 297명 중에서는 지방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경 38.4% : 향 61.7%). 반면 제술만 시행한 節日製, 黃柑製 출신 249명 중에서는 서울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경 71.2% : 향 28.8%). 강경과 제술 사이에 출신지역이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숙종대에 주로 절일제·황감제 등 제술 시험에서 직부전시 자격을 하사한 것과 달리 영조대·정조대에는 경학과 사장을 겸취한다는 취지하에 강경과 제술을 함께 시험하는 전강과 도기과 급제자를 늘리고, 절일제나 황감제에서 강경시험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숙종대 31.3%에서 그쳤던 지방 출신의 비율은 영조대 47.8%, 정조대 45.2%로 증가하였다. 즉, 성균관 시험에서는 강경과 제술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경향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상 18세기의 경향을 보면 영조·정조대에 들어 친림시의 시제를 조정하고 성균관 시험에서 강경과 제술을 병행함으로써 이들 시험에서 지방 출신의 급제가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 시험에서 여전히 서울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면모가 나타나지만 이는 이전에 비하면 격차가 한결 완화된 것이었다.

2) 경과 우위 지역의 확산

17세기에 극에 이르렀던 경향 간의 불균형 문제는 식년시가 허소화되고 경과와 성균관 시험에서 지방 출신의 급제가 늘어나며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제술 시험에서의 격차 완화가 전국적인 균형으로 확대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 내에서도 지역간의 경향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18세기 경향간의 격차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급제자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평안도였다. 그런데, 도별로 시종별 급제자 수를 정리해 보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7세기·18세기 도별 식년시·증광시·직부전시·친림시 급제자 수와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17-18세기 주요 시종의 도별 급제자 분포

구분	시종	시기	경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합계
인원	식년시	17세기	258	62	63	248	126	124	77	40	11	1009
		18세기	126	41	99	216	142	165	236	39	23	1087
	증광시	17세기	426	14	27	88	42	72	4	3	13	689
		18세기	331	22	40	82	38	104	9	3	11	640
	직부전시	17세기	61		3	10	9	1			1	85
		18세기	372	5	87	36	35	54	70	13	8	680
	친림시	17세기	355	2	23	9	16	34	4		4	447
		18세기	672	13	92	19	23	119	10	1	9	958
	합계		2601	159	434	708	431	673	410	99	80	5595
비율	식년시	17세기	25.6%	6.1%	6.2%	24.6%	12.5%	12.3%	7.6%	4.0%	1.1%	100.0%
		18세기	11.6%	3.8%	9.1%	19.9%	13.1%	15.2%	21.7%	3.6%	2.1%	100.0%
	증광시	17세기	61.8%	2.0%	3.9%	12.8%	6.1%	10.4%	0.6%	0.4%	1.9%	100.0%
		18세기	51.7%	3.4%	6.3%	12.8%	5.9%	16.3%	1.4%	0.5%	1.7%	100.0%
	직부전시	17세기	71.8%	0.0%	3.5%	11.8%	10.6%	1.2%	0.0%	0.0%	1.2%	100.0%
		18세기	54.7%	0.7%	12.8%	5.3%	5.1%	7.9%	10.3%	1.9%	1.2%	100.0%
	친림시	17세기	79.4%	0.4%	5.1%	2.0%	3.6%	7.6%	0.9%	0.0%	0.9%	100.0%
		18세기	70.1%	1.4%	9.6%	2.0%	2.4%	12.4%	1.0%	0.1%	0.9%	100.0%
	합계		46.5%	2.8%	7.8%	12.7%	7.7%	12.0%	7.3%	1.8%	1.4%	100.0%

이를 보면 18세기 경기도와 충청도는 17세기에 비해 식년시, 증광시, 직부전시, 친림시 급제자의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직부전시, 충청도는 증광시, 직부전시, 친림시 급제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식년시보다 경과의 급제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평안도는 식년시와 직부전시 비율이 급등하였는데, 직부전시자가 대부분 성균관 강경 시험 출신자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적으로 강경을 통해 급제자의 비율이 급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충청도와 평안도는 문과 급제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기 경과·성균관 시험과 식년시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비되었다. 즉, 지역마다 우위를 보이는 시종이 달랐던 것이다.

18세기 지역별로 우위를 보이는 시종을 종합하면 경과와 직부전시자가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경과와 직부전시자가 우위를 보이는 경기도와 충청도, 식년시 우위의 경상도·전라도, 식년시가 편중된 평안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17세기의 양상과 비교해 보면 서울에서 나타나던 경과·직부전시자 우위의 경향이 인근의 경기도·충청도까지 확대되고, 지역간에 우위를 보이는 시종이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현단위의 경향을 추적해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차이가 나타난다. 18세기 전국에서 20명 이상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군현은 모두 23개였다. 이들은 대부분 대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급제 시종별로 보면 여러 시종이 고루 분포하는 지역도 있으나 도내에서도 증광시나 친림시와 같은 경과에서 우위를 보이는 지역과 식년시에서 우위를 보이는 지역이 뚜렷이 나타난다.

경기도는 광주, 양주, 양근은 경과와 직부전시 하사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개성은 식년시가 중심이었다. 충청도도 충주는 친림시와 증광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청주는 식년시의 비중이 높았으며, 공주는 전 시종이 고르게 분포한 편이었다. 강원도도 강릉은 식년시 출신이 많지만 원주는 증광시와 친림시의 비중이 높았다. 경상도는 전체적으로 식년시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지만 안동은 증광시 출신의 비중이 높았다. 평안도 정주는 식년시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상의 경향을 종합하면 서울과 지방 사이 보이던 경과와 식년시 편중 경향이 도 사이로도 확대되고 도내의 군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양상은 간혹 문중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안동의 경우 대표적인 사족 가문인 의성김씨, 전주유씨, 풍산유씨, 한산이씨, 한양조씨 등은 식년시 급제자가 없는 반면 식년시 급제자가 있는 가문은 대개 1명의 급제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이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충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표 2> 18세기 주요 군현의 시종별 문과 급제자 배출 양상

도명	거주	식년시	증광시	친림시	직부전시	별시	외방별과	외방직부	기타	합계	식년시 비율
경	경	125	330	671	371	55	3	2	24	1581	7.9%
강원	원주	8	10	9	3			1		31	25.8%
	강릉	17	4					1		22	77.3%
경기	廣州	9	5	18	12	1	4		2	51	17.6%
	양주	11	4	4	11	1	1	1		33	33.3%
	개성	24		1	3		4			32	75.0%
	수원	7	1	5	6	3	5	5		32	21.9%
	용인	8	1	2	9	1			1	22	36.4%
	양근	2	6	8	4					20	10.0%
경상	상주	37	8	2	7	2		1		57	64.9%
	안동	11	24	5	8	1		1		50	22.0%
	榮川	27	4		2	1				34	79.4%
	예천	16	7	1	1					25	64.0%
	선산	8	7	3	2	1				21	38.1%
전라	나주	17	2		5					24	70.8%
	함평	17		1	4					22	77.3%
	남원	9	3	2	5	1				20	45.0%
충청	충주	12	20	37	11	1	2			83	14.5%
	청주	32	7	3	8					50	64.0%
	공주	14	9	15	9	1			1	49	28.6%
평안	정주	84	1	1	23	1	6			116	72.4%
	안주	26	1		3		1			31	83.9%
함경	함흥	14	3		6		11	1		35	40.0%

이상과 같은 양상은 경과 우위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충청도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되고, 그 바깥에서는 서울과 교류가 활발한 강원도 원주나 경상도 안동 등지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경기도 개성이나 평안도, 경상도처럼 여전히 식년시에 의존하는 지역도 있었다. 즉, 경향 간의 격차 완화라는 전체적인 추이는 서울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나타난 양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으로 경과 우위가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표 3> 18세기 경기도와 경상도의 시종별 문과 급제자 분포

지역	전체	식년시	중광시	친림시	직부전시
경기도					
경상도					

18세기의 변화는 경기도·충청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전 시기에는 문과에서 열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급제자가 크게 증가하며 지역간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경과 우위 지역과 식년시 우위 지역의 구분을 가져온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8도 중에서 유일하게 향시가 치러지지 않는 지역이었다. 선조 36년(1603) 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경기도 향시를 폐지하여 한성시에 통합시켰기 때문이다.[55] 한성시에는 팔도 유생들이 다 모일 뿐 아니라 서울 유생들의 합격률이 높았던 만큼 경기도 유생들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경기도 유생들은 향시를 복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56] 충청도도 서울에 인접한 탓에 강원도·황해도와 함께 서울 유생들이 호적을 위조하여 응시하는 지역이었다.[57] 향시가 시행되는 식년시와 중광시를 중심으로 볼 때 두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것이 오히려 지역 유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경기도는 경화사족의 배후 근거지로 문화적으로 서울과 동화되어

55) 『선조실록』 권159, 36년 2월 2일(기축)
56) 『현종실록』 권4, 현종 2년 9월 13일(기축) ; 『과거등록』 Ⅱ 4면, 무오(1678) 정월 12일 ; 『숙종실록』 권48, 숙종 36년 7월 14일(정축)
57)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11월 25일(병신)

갔으며, 충청도는 지역 사족들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여 서울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다.[58] 두 지역은 학파의 결성으로 드러나는 자신들만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서울의 문화를 흡수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울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근접하였다는 특성이 경과와 성균관 시험에서 우위를 보이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안도는 경기도·충청도와는 다른 추세에 있었다. 평안도는 식년시 급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18세기 문과 급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조선전기 문과 급제자 수는 35명이 확인되는데 이는 전체의 1%에도 미치는 못하는 비율이었다. 그러나 17세기에 3.47%로 늘어났다가 18세기에는 경상도와 유사한 9.77%로 크게 증가하였다. 식년시만 놓고 보면 전체의 21.7%로 경상도의 19.9%보다도 더 많았다[부표 참조].

또 평안도 내부의 사정을 따져보면 조선전기에는 평양과 그 인근의 중화, 함종, 숙천, 용강 등 청남지역에서 급제자의 거의 대부분이 배출되었으나 17세기부터 정주, 안주, 가산 등 정주와 인근 지역의 급제자가 조금씩 늘어나 18세기에는 정주 출신이 32.6%(116/356), 안주 출신이 8.7%(31/356)를 차지하였다. 평안도 내에서도 청남지역에서 청북지역까지 급제자의 배출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 중 정주는 18세기 동안 전국 군현 가운데 가장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定州邑誌』에서는 정주에서 다수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게 된 것을 17세기 중반 정주목사를 지낸 孟世衡·孟胄瑞 부자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 맹세형은 인조 23년(1645), 맹주서는 현종 8년(1667) 목사로 부임하였는데, 斯文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여기고 젊은 유생들을 모아 官穀으로 공궤하며 밤낮으로 勸課하여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효종 8년(1657) 金錫之가 정주 출신으로서는 처음 문과에 급제하였고, 그 이후에 급제자가 조금씩 늘어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이야기는 그저 상투적인 찬사는 아닌 듯하다. 인조 21년(1643) 청북지역에 교양관을 설치하고 經書를 간행하게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정의 교양관 설치와도 관련된 일로 보인다.[59]

그러나 정주 유생들이 지속적으로 문과에 급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평안감사가 지원한 淸北 都會가 보다 큰 몫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북도회의 면모는 『定州邑誌』에 수록된 校院學規圖說이라는 제명 하의 節目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절목은 효종 6년(1655) 감사 沈澤이 처음 작성하고 그 이후에 계속 증보되었다.

58) 黃胤錫, 『頤齋亂藁』 권15, 6월 16일 갑인
59)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5월 7일(기해)

숙종 11년(1685)에서 숙종 16년(1690) 사이에 작성된 절목을 통해 정주 도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년 3월과 9월에 接生으로 제술생 10인과 명경생 5인을 선발하여 정주 鳳鳴書院에서 居接하게 한다. 제술생은 시와 부, 명경생은 四書三經의 背講으로 시험하여 선발한다. 정주 인근의 邑에서 文官 1인을 訓導로 차정한다.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그믐 전에 敎養官이 試題와 賦題 10개씩을 내어 都會에 보내 평가한다. 10월부터 2월까지는 매월 말에 훈장이 재소에 나가 朔講을 하고 일곱 곳을 背講하게 한다. 매일 출석을 확인하는 食到記를 작성하고 10일동안 거접하지 않은 자는 朔損하고 한달을 거접하지 않은 자는 黜齋한다. 接生과 有司는 收稅 외의 雜役을 면제해 준다.[60]

이상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술생과 명경생을 구분하여 뽑았고 선발과 평가 과목을 詩, 賦와 사서삼경의 背講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과목은 이외에도 表·論·策 등 다양한 문장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정주도회에서는 이 세 과목에만 집중하였다. 그 뒤 숙종 16년(1690)에는 과거 응시자들에게 문방구를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제술생에게는 식년 생원·진사시 때 名紙 등을 지급하고, 명경생에게는 문과 때 名紙 등을 加給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면모는 청북도회가 당초부터 생원·진사시와 식년시 문과를 목표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하였다. 평안도는 18세기 식년시 문과에서 급제자의 21.7%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과 우위 지역에서 식년시 기피가 확산되는 가운데 평안도는 그 공백을 이용하여 관의 지원 하에 식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가공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원·진사시에서는 18세기 전반에는 3.1%, 18세기 후반에는 4.8%에 그쳐 실제적인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61] 생원·진사시는 여전히 전국의 유생들과 경쟁해야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평안도는 생원·진사보다 문과 급제 비율이 높은 특수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평안도 문과 급제자의 증가는 식년시와 경과의 이원화라는 구조에 힘입은 바 컸던 것이다.

평안도는 성리학의 확산이나 사족층의 발달이 저조하여 대개 무관으로 활동하거

60) 『定州邑誌』 校院學規圖說. 정주 도회는 숙종 27년(1701)에 정원 5명을 더 늘렸고, 영조 5년(1729)에 정주 新安書院에 10인을 정원으로 하는 거접을 더 설치하였다.

61) 최진옥, 2006 「조선시대 평안도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36, 216면

나 儒任이나 鄕任을 담당하는 집단이 사족으로 자처하였다.[62] 그러나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가계도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경우는 정주의 연안김씨, 수원백씨를 꼽을 수 있다.

연안김씨는 선초 이래 정주의 토착세력으로 조선전기에는 주로 무관으로 활동하며 內禁衛나 忠義衛, 千戶 등을 지내거나 평안도 출신을 차정하는 기자전 참봉, 숭녕전 참봉 등을 지내는 것이 주요한 관력이었으며, 고을 내에서는 鄕任을 담당하였다.[63] 그러나 효종 2년 김석지를 필두로 17세기 3명, 18세기 18명, 19세기 31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이 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단일 가계로서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많은 수였다. 이로써 정주의 연안김씨는 더 이상 무관으로 종사하지 않고 사족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수원백씨의 경우 영조대에 들어 문과 급제자가 처음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이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64] 이런 사례들은 평안도에서는 식년시가 토착세력들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65]

이상에서 보았듯이 경기도·충청도와 평안도 급제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전기 문과 급제자가 서울, 경상도, 전라도에 편중되었던 경향은 완화되었다. 전국적으로 지역간의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추이는 서로 달랐다. 서울 주변에서는 경과 우위 경향이 확산된 반면 그 외곽에서는 식년시 우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4. 19세기 문과의 경향 통합과 성균관 시험을 통한 차별화

1) 서울 중심의 경향 통합

19세기 들어서는 18세기에 비해 과거 시행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영조대에 과거를 남설한 이래 정조대부터 과거를 축소하려고 한 정책이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고종대에는 정치세력의 변동과 더불어 영조대를 능가하여 과거를 남설하였

62) 오수창, 앞의 책, 127-135면
63) 연안김씨지문하성사유간공종회개성부윤공파보지회 편, 1973『연안김씨개성부윤공파보』
64) 수원백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7『수원백씨대동보』3, 인주공파
65) 평안도 사족의 유래에 대해서는 Sun Joo Kim, 2007,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 the Hong Kyŏngnae Rebellion of 1812*,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21-34

다. 그 결과 순조-철종대와 고종대의 과거 운영은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아래에서는 순조-철종대를 중심으로 19세기의 경향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표 5> 1830년~1850년대 문과 鄕試 응시자 수(명)

* 전거 『각사등록』 각도편

試所 \ 試種 / 연도		식년시			증광시			정시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경상도	1842	87	87	87				
전라도	1845	87	72	48				
충청우도	1844				151	411	280	
충청도	1845	20	42	37				
〃	1853							1540
〃	1855							1405
평안북도	1835				928	615	350	
평안남도	1842	75	38	23				
평안도	1845							2110
평안북도	1848	76	61	24				
평안남도	1848				672	686	653	
〃	1853							2110
〃	1858	115	87	57				5130
〃	1859				170	115	106	
황해도	1834	21	19	18				
	1839	16	15	11				
	1845	22	21	10				
	1848	43	41	3				
	1850				572	1330	320	

19세기에는 각 도에서 중앙 정부에 보고한 향시 시행 기록이 남아 있다. 비록 자료가 단편적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지방 유생들의 응시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각 지방에서 향시를 시행한 시험은 식년시, 증광시, 정시가 있었다. 정시 향시 제도는 헌종 10년(1844)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응시자 수는 시험마다 편차가 크지만 시종 간에 뚜렷한 경향 차이가 확인된다. 1830년~1850년대의 응시 기록을 보면 식년시 응시자는 경상도 87명(1842), 전라도 87명(1845), 충청도 42명(1845), 황해도 22명(1845) 등 거의 대부분이 100명을 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많은 지역은 평안도로 삼남 각도에 비하면 2배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식년시 응시자 수는 극소수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증광시 응시자는 많은 경우 식년시 응시자의 10배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 헌종 11년(1845) 충청도의 식년시 응시자는 최고 42명인데, 그 전 해 증광시 응시자는 충청우도만도 400명을 넘는다. 정시 응시자는 다시 증광시 응시자의 2-3배가 된다. 세 시험의 응시자가 모두 확인되는 평안남도의 경우 식년시 응시자는 최고 75명(1842), 증광시 응시자는 686명(1848), 정시 응시자는 2,110명(1851)이었다.

이런 경향은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과거 응시자 중의 극소수만이 식년시에 응시하였으며, 식년시보다는 증광시, 증광시보다는 정시 응시자가 많은 것이 보편적이었다.

정시 응시자가 많은 것은 시험의 수월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초장·중장·종장 3장의 시험을 치르지만 정시는 한차례의 시험이 있을 뿐이며, 시제도 거의 賦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시가 훨씬 간편하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경상도 예천에 거주한 朴得寧(1808~1886)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응시한 기록을 보면 28년동안 44차례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식년시나 증광시 문과는 한번도 응시하지 않고, 생원·진사시와 친림시·절일제를 중심으로 과거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된다.[66]

그는 당초에는 학업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식년시·증광시에도 응시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한번도 응시하지 않았다. 그의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친림시나 절일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시점의 시제가 부로 출제되었기 때문이었다. 부는 진사시의 시험과목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생원·진사시 응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정시나 친림시 응시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식년시와 증광시는 시험 과목 및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초시제도 자체만으로는 응시자 수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차이는 초시보다는 회시에 의해 결정되는 식년시와 증광시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식년시는 강경시험, 증광시는 제술시험으로 구분되면서 소수만이 강경을 선택하여 식년시에 응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식년시 기피와 정시 선호 양상은 식년시가 강경시험으로 분화되고 친림시가 늘어난 17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도와 평안도는 초장·중장·종장의 응시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났다. 충청도 증광시(1844)는 초장 151명, 중장 411명, 종장 280명으로 중장 응시자가 가

66) 박현순, 앞의 논문(2011), 56-61면

장 많았고, 반면 평안도 증광시(1835)는 초장 928명, 중장 215명, 종장 160명으로 초장 응시자가 가장 많았다.

중장은 부·표·전 중 1편, 초장은 四書疑·義와 논 중 1편으로 각기 사장과 경학으로 시험의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충청도는 제술 우위 지역, 평안도는 경학 우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상도·전라도·황해도의 식년시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황해도 증광시에서는 오히려 중장 응시가 초장의 배에 가까워 제술 시험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황해도의 식년시와 증광시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보면 평안도를 제외한 여타지역에서도 경학 시험보다 제술 시험을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박득녕의 과거 응시 이력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 박득녕은 상경해야 하는 친림시 응시를 마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원·진사시를 볼 때도 향시보다는 한성시를 선호하였다. 그는 경상도에 살았지만 과거 응시는 시험 종류로 보나 응시 지역으로 보나 서울 유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정조 24년(1800) 지방 유생들의 한성시 응시를 둘러 싼 논란이다. 당시 승지 李尙度는 지방 유생들이 한성시에 응시하는 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금지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는 지방 유생들이 서울에서 遊學하거나 서울 유생들과 재주를 겨뤄보고자 상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67] 이 논의를 통해 보면 이즈음에는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정시나 알성시같은 친림시 뿐 아니라 향시가 있는 식년시나 증광시까지도 한성시에 응시하여 지방 유생들의 상경 응시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는 서울에서 시행한 친림시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친림시 응시자 수는 정조 초반까지는 많아야 2-3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조 후반부터 그 수가 급등하여 19세기 전반에는 대략 5만-6만명에 이르렀다.

정조대 절일제 수권 기록을 보면 수권 수가 많을수록 지방 응시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 유생들의 상경이 많을수록 응시자 수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정조대 후반부터 짧은 시간에 응시자 수가 급증한 변화는 지방 유생들의 상경 응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68]

이상 19세기 지방 유생들의 응시 경향을 보면 시험의 수월성이나 과목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과거에 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제술과 선호가 확대되고 상경 응시가 늘어났다. 이것은 문과 응시에서 서울과 지방 사이의 차

67) 『정조실록』 권54, 정조 24년 윤4월 3일(을묘)
68) 박현순, 앞의 논문(2011), 49-56면

이가 그만큼 축소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응시 경향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며 문과 운영이 서울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균관 시험을 통한 차별화

19세기 과거는 전국의 유생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순조-철종대 문과 급제자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이 39.8%, 지방 출신이 60.2%였다. 지방 출신은 18세기의 56.4%에서 3.8%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서울 출신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시종별 경향을 보면 서울 출신은 식년시의 8.0%, 친림시의 43.7%를 차지하였다. 18세기에 각기 11.6%, 70.1%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특히 친림시에서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왕대별로 보면 순조대에는 51.0%, 헌종대에는 36.4%, 철종대에는 35.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출신의 친림시 급제가 늘어나는 추세는 18세기 시제의 조정 결과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에 시행된 친림시와 정시 전시 88회의 시제를 보면 확인되는 83회 가운데 72회는 賦題가 출제되었으며, 6회는 부제와 표제가 함께 출제되었고, 표제는 단 3회가 출제되었다. 이외 고종대에 詩題가 2회 출제된 이외 다른 시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69] 이처럼 부제 집중이 장기화되면서 서울 유생들이 제술 전반에서 보이던 우위도 점차 약화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친림시에서 열세를 보였던 경상도 출신들이 친림시 급제자의 12.6%를 차지하는 등 급제 경향도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면모를 보인다. 이 시기 지방 유생들의 상경 응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서울 중심의 과거 응시가 결과적으로는 급제자의 지역적 분산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친림시의 결과는 과거 응시에서 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전국이 통합되어 가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증광시는 59.8%, 직부전시자는 71.6%를 서울 출신이 차지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18세기의 비율이 각기 51.7%, 54.6%였던 것에 비추어 특히 직부전시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순조-철종대에는 이전에 비해 친림시에서는 경향 간의 격차가 사라진 반면 성균관 시험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커졌던 것이다.

---

69) 『국조문과방목』 및 이병혁, 앞의 논문(1986)

<표 5> 순조-철종대 문과급제자의 시종별 거주지 분포

구분	시종직부	경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합계
인원	식년시	56	18	31	172	72	99	227	13	8	696
	증광시	216	9	28	43	12	32	9	7	5	361
	직부전시	303	2	35	19	7	21	31	4	1	423
	친림시	167	11	64	48	19	39	19	9	6	382
	합계	742	40	158	282	110	191	286	33	20	1,862
비율	식년시	8.0%	2.6%	4.5%	24.7%	10.3%	14.2%	32.6%	1.9%	1.1%	100.0%
	증광시	59.8%	2.5%	7.8%	11.9%	3.3%	8.9%	2.5%	1.9%	1.4%	100.0%
	직부전시	71.6%	0.5%	8.3%	4.5%	1.7%	5.0%	7.3%	0.9%	0.2%	100.0%
	친림시	43.7%	2.9%	16.8%	12.6%	5.0%	10.2%	5.0%	2.4%	1.6%	100.0%
	합계	39.8%	2.1%	8.5%	15.1%	5.9%	10.3%	15.4%	1.8%	1.1%	100.0%

직부전시자는 정조대에 문과급제자 중 3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가 순조대 에 17.5%로 비율이 급격히 줄었으나 이후 헌종대 22.6%, 철종대 28.9%로 다시 증가였다. 그 결과 순조-철종대 문과 급제자 중 직부전시자의 비율은 21.5%로 친림시나 증광시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19세기에도 성균관 시험이 문과의 일환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성균관 시험의 응시자 수는 시험마다 크게 달랐다. 성균관 유생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경우 응시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였다. 이와 달리 '通方外'라고 하여 모든 유생에게 응시를 허용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수천 명, 정시나 알성시 등 다른 과거와 함께 시행할 때는 수만 명이 응시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19세기 절일제 응시자 수를 보면 응시자가 확인되는 244회의 시험 중 177회가 만 명 이하로 5-6만에 이르는 친림시 응시자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적었다. 황감제의 경우도 통례적인 응시 인원은 2,000~4,000명 전후에 그쳤다. 이처럼 응시자 수가 적은 것은 친림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지방 유생들의 상경 응시가 많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본 박득녕의 사례를 보면 절일제 등 성균관 시험은 정시나 알성시와 함께 시행될 때만 응시하였으며, 특별히 절일제 응시를 위해 상경하지는 않았다. 성균관 제술 시험은 서울 유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7> 19세기 절일제 응시자 수 분포(회)

전거: 『일성록』

시기 / 인원	1801-1825	1826-1850	1851-1875	1876-1894	합계
1-1000	18	9	17	20	64
1001-10000	13	50	41	9	113
10001-50000	6	10	21	6	43
50001-100000		1	3	4	8
100001-200000			2	14	16
합계	37	70	84	53	244

성균관 시험은 영조대 본격화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어 직부전시 자격을 하사하는 시험의 종류도 여러 차례 정비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전반 정례적으로 직부전시를 하사하는 시험은 춘도기·추도기와 황감제로 제한되었다. 춘도기·추도기는 전강과 제술 각 1인씩을 선발하였고, 황감제는 1인을 선발하였다. 이외의 전강과 절일제 등은 그때그때 왕명으로 직부전시 자격을 하사하였을 뿐이다.

순조-철종대 직부전시자는 모두 423명이었다. 이중 도기과 출신은 215명, 황감제 출신은 57명이며, 나머지 151명은 절일제, 참반유생별제, 응제 등에서 선발하였다. 출신 지역을 보면 제술 시험인 황감제와 절일제에서는 서울 출신의 비율이 80.0%(134/168)로 18세기보다 더 높았다.

아울러 도기과와 전강의 경우도 18세기와 달리 서울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도기과는 42.2%(49/116)에서 61.4%(132/215), 전강은 35.6%(63/177)에서 100%(32/32)로 서울 출신의 비율이 높아졌다. 도기과와 전강은 모두 강경과 제술을 겸행하는 시험으로 18세기에는 지방 출신, 특히 평안도 출신의 급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서울 출신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전강의 경우는 전원이 서울 출신이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한편 제술 시험가운데 皇壇拜禮 때 참여한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른 別製의 경우 급제자 29명 중 13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安東金氏였다. 황단배례유생별제는 안동김씨를 위한 시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순조-철종대 서울 출신 문과 급제자 771명 중 303명, 39.3%가 직부전시자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는 식년시는 물론 증광시 28.0%(216명), 친림시 21.7%(167명)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그 가운데 안동김씨는 54.5%(30명/55명), 풍양조씨는 63.3%

(21명/33명)가 직부전시 출신자로 다른 가계보다도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조선시대의 관료임용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문과의 장벽을 넘어야만 그 모집단을 재생산할 수 있었다. 세도가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문과급제자를 배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였다. 이에 세도정권은 이미 허소화된 식년시나 경쟁률이 높은 친림시보다 증광시나 직부전시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성균관 시험은 응시자 수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문과에 급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영조·정조대 성균관 과시가 허소화된 문과를 대신하여 實才를 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된 데 비하여 19세기에는 세도정권의 모집단을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직부전시자들이 서울 출신으로 편중된 양상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19세기 순조-철종대 문과 급제자의 분포를 보면 18세기의 연장선에서 친림시에서의 지역 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반면 성균관 시험에서는 서울 편중 현상이 더욱 강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세도정권이 모집단의 재생산을 위해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이 이원화된 양상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양인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교육기회의 부재나 향촌사회에서의 권력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로 과거 응시에 제약이 따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올수록 과거에 응시하는 계층이 확대되었으며, 과거 응시자도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급제자 배출에서 지역간에 나타나던 격차도 갈수록 완화되었다. 그 가운데 17세기 이래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어 과거제 운영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불균형이 대두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초 과거를 시행한 이래 급제자가 서울에 편중되는 양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조선전기에는 시종을 불문하고 서울 출신이 급제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서울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17세기에는 숫적인 면에서는 경향간의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식년시는 강경, 경과는 제술 시험으로 문과가 이원

화되면서 식년시는 지방 출신, 경과, 그 중에서도 특히 친림시는 서울 출신이 급제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서울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17세기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는 식년시와 경과가 이원화된 가운데 식년시와 친림시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식년시는 급제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고급 관료 선발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며 지방 유생을 위한 시험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친림시는 시제를 조정하여 지방 유생들의 급제로를 넓힘으로써 점차 전국을 포괄하는 시험으로 확대되어 갔다. 즉, 17세기에는 친림시 급제자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18세기에는 서울과 인근의 경기도, 충청도에서도 다수의 급제자가 배출되었으며, 19세기에는 전국에 분산되는 면모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 준비가 수월해지면서 친림시에서도 경향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응시자들이 선택한 응시 전략에 주목하였다. 17세기 지방 유생들은 우위를 보인 강경을 집중적으로 연마하여 식년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서울 유생들은 제술에 집중하여 경과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이 강경 위주의 식년시와 제술 위주의 경과가 이원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지방 유생들은 친림시 응시가 용이해짐에 따라 경학 중심에서 사장 중심으로 응시 전략을 수정해 갔다. 이에 따라 친림시 급제자 중 지방 출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는 서울 주변에서 그 외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경과에서 나타나던 서울의 우위도 사라져갔다. 이에 수반하여 친림시 응시자가 급증하며 과거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서울의 우위도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세도정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성균관 시험을 운영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모집단을 확보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문과는 고급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이지만 문과에서 경향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와 달리 고급관료의 임용에서는 경향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경화사족이나 세도정권의 대두가 그 예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과에서 고급 관료 선발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도가 유지되는 한 문과를 거쳐야 고급 관료가 될 수 있었지만 고급 관료를 선발하는 데에는 문과 외의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주제어 : 科擧, 文科, 式年試, 親臨試, 慶科, 成均館

접수일(2012. 5. 21), 심사시작일(2012. 5. 25), 게재확정일(2012. 6. 12)

<Abstract>

The Imbalance in successful passers' numbers in the Capital and Local regions, displayed in the outcome of the Civil Examination system(Mun-gwa, 文科),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Park, Hyun Soon *

Since the 17th century, a certain imbalance, between the number of successful passers for the National Civil examination system(Mun-gwa, 文科) who were living in the Capital city, and the number of such people who were living in the local regions, started to form. It became a serious issue to be discussed with, in this period. Examined in this article is why such imbalance happened in the first place, and how it progressed.

In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period, passers of the civil examination were mostly from the Capital city, or from the Gyeongsang-do and Jeolla-do regions. But such tendency did not show up in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type of test they applied to.

Then, in the 17th century, the biennial "Shik'nyeon-shi" exam, which usually tested the applicant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Classic texts(講經), became a test that mostly selected Confucian students living and studying in local regions, while the "Gyeong-gwa/慶科" exam(exams held to celebrate happy occasions), which tested the applicants' skill in literary writing(製述), became a test that mostly selected Confucian students from the Capital. This 'imbalance,' or to be said as a separation in the selection process, in terms of the capital applicants and local ones, became a problem.

The Shik'nyeon-shi exam was originally an exam that was designed to select high-ranking governmental officials, yet since the 17th century it lost such status and became a test only to select Confucian students from local regions. However, as the

* HK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urt changed the examination subject of "Chin'rim-shi/親臨試" exam to make students from local regions apply to the exam more easily, the number of successful passers from them continuously increased. As a result, the imbalance was moderated. This chagne was brought about by the application strategy adopted by the student from local regions who wanted to pass the exam.

Key Words : the National Civil examination system(文科), Shik'nyeon-shi exam(式年試), Chin'rim-shi exam(親臨試), Gyeong-gwa exam(慶科), Seong'gyun-gwan(成均館)

<부표 1> 조선시기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명)

시기	시종	경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미상	합계
15세기	별시	33	2	5	25	11	2	1		2	113	194
	식년시	220	33	38	119	66	42	6	6	10	649	1,189
	외방별과	11	1	1		3	2	5		9	25	57
	증광시	40	3	8	21	18	10	1		1	109	211
	직부전시	1									5	6
	친림시	59	3	7	25	12	11	1		4	140	262
	소계	364	42	59	190	110	67	14	6	26	1,041	1,919
16세기	기타	16	1	1	4	1	2			1	2	28
	별시	388	17	32	96	74	40	7	1	5	202	862
	식년시	394	12	44	120	112	55	12	15	14	224	1,002
	외방별과	7		2		3	1	1		1	7	22
	외방직부							1	1			2
	증광시	90	2	6	26	10	7			3	30	174
	직부전시	14			3		1				7	25
	친림시	135	3	14	11	12	2				110	287
	소계	1,044	35	99	260	212	108	21	17	24	582	2,402
17세기	별시	265	5	25	37	25	35	2	2	2	46	444
	식년시	258	62	63	248	126	124	77	40	11	40	1,049
	외방별과	7	1	4	1	4	16	12	6		4	55
	외방직부	2	2	2	2	11		2	3	5		29
	증광시	426	14	27	88	42	72	4	3	13	45	734
	직부전시	61		3	10	9	1			1	3	88
	친림시	355	2	23	9	16	34	4		4	62	509
	소계	1,374	86	147	395	233	282	101	54	36	200	2,908
18세기	기타	24		5			2					31
	별시	55	1	7	8	4	7	1				83
	식년시	126	41	99	216	142	165	236	39	23	1	1,088
	외방별과	3		31		2	14	29	36			115
	외방직부	2	5	13	2	23		1	2			48
	증광시	331	22	40	82	38	104	9	3	11		640
	직부전시	372	5	87	36	35	54	70	13	8	1	681
	친림시	672	13	92	19	23	119	10	1	9	1	959
	소계	1,585	87	374	363	267	465	356	94	51	3	3,645
19세기	기타	8		10	2		2					22
	별시	88	5	20	16	12	25	13	8	8	1	196
	식년시	71	27	44	238	125	135	385	19	20		1,064
	외방별과			21		8		35	40			104
	외방직부	1		14		6						21
	증광시	331	12	44	59	18	57	20	16	10		567
	직부전시	636	14	125	66	46	107	86	15	12	1	1,108
	친림시	239	23	105	81	39	79	53	20	19	1	659
	소계	1,374	81	383	462	254	405	592	118	69	3	3,741
합계		5,741	331	1,062	1,670	1,076	1,327	1,084	289	206	1,829	14,615

<부표 2> 조선시기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

시기	시종	경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미상	합계
15세기	별시	17.0%	1.0%	2.6%	12.9%	5.7%	1.0%	0.5%	0.0%	1.0%	58.2%	100.0%
	식년시	18.5%	2.8%	3.2%	10.0%	5.6%	3.5%	0.5%	0.5%	0.8%	54.6%	100.0%
	외방별과	19.3%	1.8%	1.8%	0.0%	5.3%	3.5%	8.8%	0.0%	15.8%	43.9%	100.0%
	증광시	19.0%	1.4%	3.8%	10.0%	8.5%	4.7%	0.5%	0.0%	0.5%	51.7%	100.0%
	직부전시	16.7%	0.0%	0.0%	0.0%	0.0%	0.0%	0.0%	0.0%	0.0%	83.3%	100.0%
	친림시	22.5%	1.1%	2.7%	9.5%	4.6%	4.2%	0.4%	0.0%	1.5%	53.4%	100.0%
	소계	19.0%	2.2%	3.1%	9.9%	5.7%	3.5%	0.7%	0.3%	1.4%	54.2%	100.0%
16세기	기타	57.1%	3.6%	3.6%	14.3%	3.6%	7.1%	0.0%	0.0%	3.6%	7.1%	100.0%
	별시	45.0%	2.0%	3.7%	11.1%	8.6%	4.6%	0.8%	0.1%	0.6%	23.4%	100.0%
	식년시	39.3%	1.2%	4.4%	12.0%	11.2%	5.5%	1.2%	1.5%	1.4%	22.4%	100.0%
	외방별과	31.8%	0.0%	9.1%	0.0%	13.6%	4.5%	4.5%	0.0%	4.5%	31.8%	100.0%
	외방직부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100.0%
	증광시	51.7%	1.1%	3.4%	14.9%	5.7%	4.0%	0.0%	0.0%	1.7%	17.2%	100.0%
	직부전시	56.0%	0.0%	0.0%	12.0%	0.0%	4.0%	0.0%	0.0%	0.0%	28.0%	100.0%
	친림시	47.0%	1.0%	4.9%	3.8%	4.2%	0.7%	0.0%	0.0%	0.0%	38.3%	100.0%
	소계	43.5%	1.5%	4.1%	10.8%	8.8%	4.5%	0.9%	0.7%	1.0%	24.2%	100.0%
17세기	별시	59.7%	1.1%	5.6%	8.3%	5.6%	7.9%	0.5%	0.5%	0.5%	10.4%	100.0%
	식년시	24.6%	5.9%	6.0%	23.6%	12.0%	11.8%	7.3%	3.8%	1.0%	3.8%	100.0%
	외방별과	12.7%	1.8%	7.3%	1.8%	7.3%	29.1%	21.8%	10.9%	0.0%	7.3%	100.0%
	외방직부	6.9%	6.9%	6.9%	6.9%	37.9%	0.0%	6.9%	10.3%	17.2%	0.0%	100.0%
	증광시	58.0%	1.9%	3.7%	12.0%	5.7%	9.8%	0.5%	0.4%	1.8%	6.1%	100.0%
	직부전시	69.3%	0.0%	3.4%	11.4%	10.2%	1.1%	0.0%	0.0%	1.1%	3.4%	100.0%
	친림시	69.7%	0.4%	4.5%	1.8%	3.1%	6.7%	0.8%	0.0%	0.8%	12.2%	100.0%
	소계	47.2%	3.0%	5.1%	13.6%	8.0%	9.7%	3.5%	1.9%	1.2%	6.9%	100.0%
18세기	기타	77.4%	0.0%	16.1%	0.0%	0.0%	6.5%	0.0%	0.0%	0.0%	0.0%	100.0%
	별시	66.3%	1.2%	8.4%	9.6%	4.8%	8.4%	1.2%	0.0%	0.0%	0.0%	100.0%
	식년시	11.6%	3.8%	9.1%	19.9%	13.1%	15.2%	21.7%	3.6%	2.1%	0.1%	100.0%
	외방별과	2.6%	0.0%	27.0%	0.0%	1.7%	12.2%	25.2%	31.3%	0.0%	0.0%	100.0%
	외방직부	4.2%	10.4%	27.1%	4.2%	47.9%	0.0%	2.1%	4.2%	0.0%	0.0%	100.0%
	증광시	51.7%	3.4%	6.3%	12.8%	5.9%	16.3%	1.4%	0.5%	1.7%	0.0%	100.0%
	직부전시	54.6%	0.7%	12.8%	5.3%	5.1%	7.9%	10.3%	1.9%	1.2%	0.1%	100.0%
	친림시	70.1%	1.4%	9.6%	2.0%	2.4%	12.4%	1.0%	0.1%	0.9%	0.1%	100.0%
	소계	43.5%	2.4%	10.3%	10.0%	7.3%	12.8%	9.8%	2.6%	1.4%	0.1%	100.0%
19세기	기타	36.4%	0.0%	45.5%	9.1%	0.0%	9.1%	0.0%	0.0%	0.0%	0.0%	100.0%
	별시	44.9%	2.6%	10.2%	8.2%	6.1%	12.8%	6.6%	4.1%	4.1%	0.5%	100.0%
	식년시	6.7%	2.5%	4.1%	22.4%	11.7%	12.7%	36.2%	1.8%	1.9%	0.0%	100.0%
	외방별과	0.0%	0.0%	20.2%	0.0%	7.7%	0.0%	33.7%	38.5%	0.0%	0.0%	100.0%
	외방직부	4.8%	0.0%	66.7%	0.0%	28.6%	0.0%	0.0%	0.0%	0.0%	0.0%	100.0%
	증광시	58.4%	2.1%	7.8%	10.4%	3.2%	10.1%	3.5%	2.8%	1.8%	0.0%	100.0%
	직부전시	57.4%	1.3%	11.3%	6.0%	4.2%	9.7%	7.8%	1.4%	1.1%	0.1%	100.0%
	친림시	36.3%	3.5%	15.9%	12.3%	5.9%	12.0%	8.0%	3.0%	2.9%	0.2%	100.0%
	소계	36.7%	2.2%	10.2%	12.3%	6.8%	10.8%	15.8%	3.2%	1.8%	0.1%	100.0%
합계		39.3%	2.3%	7.3%	11.4%	7.4%	9.1%	7.4%	2.0%	1.4%	12.5%	100.0%

<부표 3> 조선후기 지방 출신 문과급제자의 거주지 분포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체			
식년시			
증광시			
친림시			
직부전시			